



## 관통도로 · 철탑에 1000년 역사 비경 '와' '뽕' '뽕'...

### ■ 내포문화권 중심 가야산은

예로부터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한 명산 가야산은 충청남도 서북부에 뿔출된 태안반도의 동쪽을 남북으로 달리면서 동쪽으로는 예당평야와 서쪽으로는 서산·태안지역으로 나누는 곳에 위치한 내포문화권 중심에 있는 산이다. 그래서 가야산은 백제시대 때부터 중국과 사신왕래, 유학, 무역을 통하는 길로서 금강 하구와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장소였다. 특히 가야산은 불교와 인연이 깊다. 가아라는 말은 꼬끼리를 뜻하는 말이고 상왕은 꼬끼리의 왕으로 흰 꼬끼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의 태에 들어온 부처님의 상징이다. 가야산은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을 비롯해 보원사지(사적 316호)·백암사지 등 100여개의 폐사지와 보덕사·개심사·일락사·문수사·보원사 등 현존 사찰이 있는 불교유적의 보고이다.

### '백제의 미소 길' 명명식 현장

가야산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관통도로, 송전철탑, 골프장 건설로 신음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450억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 남연군묘에서 시작해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지에 폭 7-10m, 길이 10.059km에 이르는 '가야산 순환도로'와 '고압전선철탑' 건설계획을 잡고 있는 것.

5월 25일 가야산 남연군묘앞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불자 등 300여명이 가야산 오르는 산길에 '백제의 미소 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길의 숨소리와 문화유산을 보고 느끼고 지키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다.

'백제의 미소 길' 명명식에서 가야산연대 집행위원장 장범 스님(보원사 주지)은 "이 산은 차가 다니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아이없는 탁상행정으로 1000년 역사와 비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길을 '백제의 미소 길'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산을 지키는 의미로 새로운 도로가 예정된 가야산 자락에 부부장승을 세웠다.

신랑 장승은 머리에 백제의 5층 석탑을 의미하는 관을 쓰고 '천하 대장군' 대신 '백제의 미소 길'이라는 문구가 쓰여졌다. 각시 장승은 '백제의 문화를 밝히라'는 뜻에서 족두리에 검은 해가 그려졌다.

장승을 깎은 방유석(48·예산군)씨는 "가야산에 순환도로가 생긴다는 말에 기막혀 장승을 만들게 됐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80여 곳의 사지(寺址)에 장승을 세워 이산이 불교 성산임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1부 행사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모두 맨발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평소 맨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산길을 걷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며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마가 스님은 가야산을 오르는 중에 참가자들에게 "가야산과 나와 남을 느끼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조용히 한발 한발 나아가라"며 말하고 "자연을 지키고 남을 위하길 원한다면 성 안내는 얼굴을 공양구로 삼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와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라"고 조언했다.

산행 중에는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길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동참한 모씨는 "눈이 안보여 불안하다기보다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져 바람소리 물소리 가야산의 향기를 더



가야산을 지키기 위한 장승을 이운하는 참가자들.

많이 느끼게 돼서 좋다"며 팔짱을 끼고 호흡을 맞췄다.

가야산 개발과 개발 저지 운동에 대해 수업 시간에 알게 돼 참가했다는 강선영 학생(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은 "맨발로 가야산을 오르는 것은 힘들기도 했지만 가야산의 느낌을 알게 돼 기쁘다"며 "이 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예산/글·사진=고영배 기자

### 충남도 450억 예산 가야산 개발계획에 환경운동가 지역주민 불자 등 300여명 자연·문화유산 지키기 위해 한자리



### 영원한 자유를 찾아서 명상 그 푸른눈의 지혜



불교 비빠사나와 주요 요가 명상법을 혼자서 쉽게 수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식사상연구회 고목 지음  
도서출판 밀양

### <머리글 중에서>

'형상'과 '이름'에 집착하여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한채 오로지 밖으로만 구하여 탐진치는 더욱 강렬해지고 신구의(身口意) 3업은 더욱 거침·모습으로 감각과 말초(末梢)의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좇아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흉악해진다. 참되지 못한 망령됨과 순수하지 못한 혼탁함으로 중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어 어!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실종되고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매몰되도다.

인류는 2분법적 지식과 局所科學에 의지하여 일로 변역을 추구해 왔으나 끝내 '인'과 '밖', '정신'과 '물질' 양면에 걸쳐 共滅의 재앙을 목전에 초래하고 말았다.

<과연 末法現代는 그 무엇으로 살길을 찾을 것인가?>

### - 慧眼을 열어주는 책들 -

#### ■ 新 유식학 (보정판)

'마음'에 관한 모든 것, 그 신비하고 복잡한 마음의 세계를 완벽하게 파헤친다.  
₩ 12,000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 ■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철학적 사유와 禪.....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가?  
₩ 14,000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 ■ 金剛經 最上乘解 [근간]

언어문자를 쓰되 그것을 넘어서는 최상승의 해설  
末法時代 현대문명이 담면하고 있는 온갖 모순과 해악에 대한 명쾌한 해답.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 구입문의

- 유명서점·불교서점  
-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